

[미국-뉴욕]캐나다 아마존 식품 코너 추가

온라인 상점인 아마존이 캐나다 내에서 슈퍼마켓 비즈니스를 최근 추가하였다. 10 월 31 일 발표된 이같은 뉴스는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는데, 이 회사의 취급 코너의 확대에 따른 일련의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덧붙여 이 회사는 자동차 액세서리 용을 포함한 12 개의 다른 코너도 함께 추가한다는 발표도 이어졌다.



1500 여개에 달하는 식품류 취급

아마존은 캐나다 내에서 음료, 아침 식사 식품류, 자연식품, 유기농 식품, 캔디, 초콜렛, 선물용 과자, 유아 식품, 커피 등 15,000 개에 달하는 식품류를 취급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런칭에는 부패하기 쉬운 우유, 과일, 채소 등은 포함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아마존은 캐나다 내에서는 다른 어떤 회사보다 큰 규모로 온라인 식료품 사업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사이트에 현재 등록된 브랜드로는 네슬레, 캠벨, 그린 마운틴, 켈로그 등이고, 특히 네슬레와 켈로그 브랜드는 유기농 식품, 스넥, 음료 및 제빵 관 물품 등을 홈페이지에 강조해서 전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The Journey is Long. Eat Well.
Nestlé Items Now Available
> Shop now



사이트, 검색이 쉬운 형식

아마존의 온라인 식품부는 음료, 스넥, 아침 식사 제품, 제빵 관련 상품, 유아용품 등 몇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자연 식품과 유기농 식품을 별도의 섹션으로 두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글루틴 프리나 페어 트레이드 같은 특정 아이টে으로 검색하기 쉬운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BEVERAGES

COFFEE
TEA
WATER
ENERGY DRINKS
SHOP ALL



BREAKFAST FOODS

BARS
OATMEAL
COLD CEREAL
GRANOLA
SHOP ALL



PANTRY STAPLES

BAKING SUPPLIES
HERBS & SPICES
SOUPS & STEWS
SAUCES & GRAVY
SHOP ALL



SNACK FOODS

CHIPS & CRISPS
COOKIES
CRACKERS
GRANOLA BARS
SHOP ALL



NATURAL & ORGANIC

BEVERAGES
BREAKFAST
PANTRY STAPLES
SNACK FOOD
SHOP ALL



BABY FOOD

FRUIT
VEGETABLES
SNACK FOOD
DINNER
SHOP ALL



25 달러 이상 구입시 무료 배달

몇 가지 품목은 재고를 충분하게 확보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커피 품목에서 아마존은 티모시 브랙퍼스트 블랜드 K-cup 커피 96 팩을 65.96 달러(개당 69 센트)로 판매하고 있다. 400 그램 짜리 켈로그 백터 시리얼은 5.39 달러에, 6 팩짜리 클립바는 12.52 달러에 판매된다. 아마존은 대부분의 식품류에 대해 25 달러 이상 구입시 무료 배달을 할 계획인데, 아마존 프라임 회원에게는 2 일내 배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취급 물품 확대 계획

Amazon.ca 의 캐나다 매니저 알렉산더 개뇨씨는 이제 다음 단계는 취급 물품을 더욱 더 확대시키고 성장 하는 일 이라고 전하였다. 소비자 개별 취향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받아 들이고, 보다 광범위한 브랜드 선택이 가능 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소비자들이 쉽고,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한다.

신선 식품 배달도 점차 확대

아마존은 미국의 경우 시애틀과 로스엔젤레스에서 신선식품류도 고객들에게 아마존 프레시를 통해 배달을 하고 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아마존은 본사가 있는 미국의 시애틀에서 식품류 배달을 시험하여 왔다. 이러한 서비스를 아마존 프레시라고



부르는데, 이 회사는 시애틀 지역에 생산 식품, 고기류 등을 소비자들의 집에 직접 배달해 왔다. 이 회사의 CEO 인 제프 베조스(위 사진 참조)는 이제 모든 시험이 완료된 상태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마존은 내년부터 신선식품류 배달을 20 여개 도시로 확대하고, 미국 외의 지역에는 캐나다의 토론토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¹

¹ . <http://www.canadiangrocer.com/worth-reading/amazon-set-to-expand-online-grocery-service-27192>

아마존으로 산업의 변동 유발

애널리스트들은 아마존의 캐나다 식료품 진입이 산업의 대변동을 유발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대형 식료품 체인점중 온라인 세일을 전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월마트가 10 월 초 건조 식품 위주로 온라인 쇼핑을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오프라인 없이 온라인에서만 식료품을 취급하는 주요 회사로는 현재 Grocery Gateway, 토론토 기반의 Longo's subsidiary, 구엘프에서 건조 식품을 전국으로 배달하는 Well.ca 정도가 있을 뿐이다.

향후, 경쟁체제 심화

아마존의 캐나다 식품 시장의 진입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더욱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반면, 업종 내부에서는 경쟁 체제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이 중 오프라인의 거인인 월마트와 온라인의 거인인 아마존의 식품 시장에서의 온라인 경쟁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다.



팬실베니아 대학교 왓슨 비즈니스 스쿨의 분석에 따르면 우선 양쪽 회사 모두에게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²

우선 월마트는 광범위한 공급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온라인에서 클릭하여 주문을 내리고 가까운 월마트 지점에서 한꺼번에 픽업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월마트는 또한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하오디안 온라인

².

<http://www.vancouversun.com/business/Amazon+sell+groceries+online+Canada/9109823/story.html>

식품점의 51%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온라인 식품 사업이 전혀 낯설지는 않은 입장이다. 반면, 아마존은 온라인 상거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저가 배달 모델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Costco.ca 또한 제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정 식품 품목에 한하여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 점차 성장 추세

캐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의 온라인 쇼핑은 2012년 189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0년 대비 24 퍼센트 포인트 성장 하였다. 이 중 음료와 식품의 온라인 쇼핑은 18 퍼센트인 34억 달러 차지하여 캐나다 전체 식료품 시장 규모인 1120억 달러의 3 퍼센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아마존과 월마트가 지속적으로 시장 규모를 넓혀갈 경우 이러한 수준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³

최근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타임스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특히 부유층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온라인 식품 쇼핑이 증대하고 있어 슈퍼마켓은 이에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⁴ 또한 소매업 컨설턴트업의 선두 주자인 Brick Meets Click의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 5의 식품 소비자로 대변되는 부유층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주로 나선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들 고소득자들은 온라인 쇼핑을 자연식품과 유기농 식품을 구하기 위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배달 비용에 민감하다고 전하고 있다.

2023년까지 미국의 온라인을 통한 식품 지출 비용은 현재의 3.3%에서 1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net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³. <http://www.vancouver.sun.com/business/Amazon+sell+groceries+online+Canada/9109823/story.html>

⁴. <http://www.ibtimes.com/exclusive-preview-supermarkets-must-digitize-groceries-attract-young-wealthy-research-survey-1411062>